"뿌리는 불교, 줄기는 사회문제 얘기하자"

8·27 범불교도대회 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불교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종교문제가 생긴 것이다. 넘볼 수 있도록 낮아진 것이다. 한용운 스님은 일본에 침략당한 것에 대해 '물이라는 세력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낮게 쌓은 둑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절대 불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스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독립'을 화두로 삼았다. 뿌리는 불교에 두고 줄기는 사회문제로, 그 방식은 시문학을 통해 사상을 펼쳤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지난 8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종교로 인한 사회분열은 현 정부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박광서 공동대표는 "불교가 얼마나 한국사회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느리지만 떳떳하고 당당한 행보가 불교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

"느리지만 떳떳하고 당당한 행보가 불교를 자랑스럽게 만든다"

박 대표는 2008년 범불교도대회 이후 얻은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짚은 뒤,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는 "차분한 열정으로 사회감각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잡아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2010년도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시정공고가 내려졌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동국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국대가 먼저 생각을 달리해 통 크게 열어놓고 종교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대표는 "수년전 여론조사에서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89%나 되었지만 정부와 국세청은 개신교 위세에 눌려 잘못된 관행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며 "당당하지 못한 집단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국고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헌법 조항 손질, 종교법인법 제정, 종교평화헌장 공포, 보편적 종교교육 강화, 증오금지법이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종교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스스로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도 "차분한 열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한다"며 "스님들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스님도 "스님들에게 불교사상이나 이념을 교육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불교정신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늘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라며 "발제문이 스님들에게 자비심 교육을 시키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총장 혜일스님,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혜용스님, 조현 한겨레 신문 기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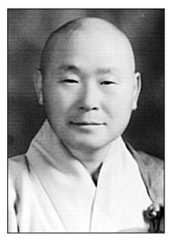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시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비엔티엔시 싸이타니구 지역 '나응 움마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COLA(Cool Learning Asia)' 공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1병의 콜라는 한 구좌 1만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콜라 한 병은 학교건축과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주 관 :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 목 표 액 : 5000만원
- 후원방법 : 1만원
- 후원계좌 : 외환은행 630-007156-170 예금주 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불교신문사 (02)733-1604

봉선사 주지후보 정수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전 용문사 주지 정수스님〈사진〉이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에 선출됐다. 봉선사는 지난 8월26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열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정수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정수스님이 단독으로 입후보함에 따라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정수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본말사의 화합을 당부했다.

정수스님은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3년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8년 해인사승가대학 졸업했으며, 양평 용문사와 양주 백화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엄태규 기자

착한 일 할 때마다 자녀통장에 100원씩 후원

아름다운동행 '세살 때부터 나눔' 캠페인

아름다운동행이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달부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우리는 친구들을 사랑 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해 아름다운동행에 정기후원하고 성인이 되면 물려주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100원을 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자녀와 함께 모금할 수 있도록 20가지 실천덕목이 적혀있는 저금통을 제작하고 무료로 나눠준다. 망가지거나 훼손돼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친다. 모금에는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면 단체(http://www.thenanum.org)로 문의하면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올 연말까지 5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금 전액은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경제교육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영주 모금사업팀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동전 하나를 저금통에 넣으며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면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기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눔이라는 가치를 심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바로잡습니다

제2747호 2면 '10·27 법난' 기사에서 "현재 중앙종회의원"을 "전(前) 중앙종회의원"으로 바로잡습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등 종교방송 사장단의 예방을 받고 미디어렙 법안 제정을 위해 종단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미디어렙 法제정되도록 노력"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교방송사장단 면담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등 종교방송사장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종교방송 지원방안이 포함된 미디어렙 법안 연내 제정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과 평화방송 사장 오지영 신부, 이재천 기독교방송 사장 등 종교방송사장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오지영 신부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정신문화는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각 종교방송들이 광고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시대흐름에 따르다보니 존폐위기에 내몰려져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반 미디어는 수익성을 중요시하지만 종교계 미디어는 인성을 중시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 종교방송사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각 종단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종교방송사장단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데 이어 이달에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를 잇따라 예방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유승민 與 최고위원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불자 국회의원인 유승민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최근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바쁘시겠다"면서 안부인사를 건넸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교육감 선거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문제는 복지분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문에 불과한데도 복지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민감하게 대립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불교관련 법령 개정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불기2555년 신묘년

가을 기본선원 입방 갈마 안내

▮기본선원의 특징과 지향점

- 기본선원은 본종의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참선수행자로서의 기본을 익히며 선원의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고 불조의 혜명을 이을 본분 납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종립선원임**
- 수행과 지성을 겸비하고 원력(願力)과 행해(行解)가 원만한 이시대의 선지식, 본분 납자가 됨을 수행이념으로 함
- 오랫동안 실참수행하고 이론에도 밝은 선원장급 이상 구참스님과 선교(禪敎)를 겸한 강주급 스님 등으로 구성된 교선사(敎禪師)스님이 1과목씩 강의하여 질 높은 강의내용으로, 결제기간에는 참선위주로 정진하여 정진력을 기르고 해제기간을 이용해서 결제기간동안 수행한 정진력의 바탕위에 집중적으로 교과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천수행(체험)과 이론학습을 겸하는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기하게 되며 초기불교시대와 중국 선불교 황금시대의 교육 · 수행 모습, 즉 잘 배워[聞慧], 잘 사유하여[思慧], 직접 체험[修慧]하도록 시도하고 있음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주창한 **수행 결사, 생명 결사, 나눔 결사** 등 결사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한국불교 수행의 은둔적, 개인주의적, 도가적(道家的) 수행풍토를 극복하고 지비쌍운(智悲雙運)의 원력적 수행풍토를 조성토록 함.

▮갈마대상자

- 기본선원에 신입으로 입방하여 기본선원의 수행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미 · 사미니로서 행자교육 수료기수 27~41기 해당자(이전 기수는 심의를 통해서 갈마에 응할 수 있음)

▮접수일시

- **불기2555(2011)년 9월 7일(음력 8월 10일) 오후 3 시까지**(기본선원 사무실 접수 마감)

▮제출서류

① 입방원서 및 청규서약서(소정 양식) · · · · · · 1부(기본선원에 와서 작성)
② 수계증명서 또는 사미 · 사미니증 · · · · · · · 1부(기본선원에서 복사가능)
③ 사진(3cm×4cm) · · · · · · · · · · · · · · 2매
④ 건강진단서(3차 의료기관 발급) · · · · · · · 1부(행자 41기 수료자는 不要)
⑤ 은사스님 추천서(은사스님 자필) · · · · · · · 1부(차후 제출 가능)

▮갈마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년 **9**월 **7**일(음력 8월 10일) 오후 3시 ~ **9**월 **8**일
- 장 소 : 기본선원
- 준비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필답고사용)

▮기본선원 수행 및 교육내용

〈1년차~2년차〉 – 하 · 동안거 결제기간에 기본적으로 참선정진하며 하루 1시간 이상 교과학습, 해제기간에도 아침, 저녁으로 참선정진하며 매일 2시간 이상 교과학습을 통해 습의, 율의, 기본의식, 좌선작법 등 승가생활의 기본을 익히고 좌선수행의 기초를 굳건히 하며 불교의 근본사상과 선사상을 확립함.

〈3년차~4년차〉 –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동안 참선 정진하며 봄, 가을 해제 기간 중 1개월 이상 조 · 석으로 참선수행을 하며 하루 4시간 교과교육을 실시하여 참선수행의 기초를 굳건히 하며 불교의 근본사상과 선사상을 확립함.

▮교과교육 과목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불교개론, 석문의범, 계율Ⅰ.Ⅱ.Ⅲ, 초기불교 이해, 초기불전 강독Ⅰ.Ⅱ, 대승불교 개론, 반야중관 · 유가유식, 천태 · 화엄, 대승불교실천론, 선학개론, 선종사, 선수행론, 한국선사상사, 참선지도 방법론,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육조단경, 선가귀감, 선관책진, 전심법요, 선경어, 돈오입도요문론, 태고어록, 이입사행론, 임제록, 신심명, 몽산법어, 선교결, 서장, 증도가, 선요 등

※교육원의 교육개혁 정신을 수용하여 교육원이 정한 표준교과목에 충실하면서 기본선원의 특징을 살려 교과교육을 실시함.

▮교 선 사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도업스님(동국대학교 전 불교 대학원장), 무비스님(전 교육원장), 무여스님(축서사 선원장), 미산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설우스님(교선사), 성우스님(조계종계단 갈마아사리), 수진스님(전 해인사강원 강주), 신룡스님(전 백담사 선원장), 영진스님(전 기본선원장), 영일스님(선원 한주), 원순스님(교선사), 월암스님(용성선원장), 일귀스님(송광사강원 강주), 정화스님(교선사), 종진스님(해인사총림 율원 율주), 지운스님(전 동화사강원 강주), 지환스님(기본선원장), 통광스님(쌍계사강원 강주), 학담스님(대승원 원장), 혜국스님(석종사 선원장),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 혜남스님(영축총림 전계사), 효림스님(만해마을 사무총장)

〈가나다 순〉

▮문 의 처

대구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 內 기본선원 사무처 **(053)985-2705**
〈단,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제외〉

불기2555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인각 · 선원장 지환